



▲ 최근수 대표가 네오머큐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 라벨 인쇄 시연 모습

달리, 네오 머큐리 시리즈 론칭 가변데이터 처리 · 분당 최고 50m 출력

(주)달리(대표이사 최근수)는 지난 4월 1일 동두천시에 위치한 본사 2층 연수관에서 디지털라벨프린터인 '네오 머큐리 시리즈'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론칭 행사는 회사 및 머큐리 시리즈 소개, 장비 시연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최근수 (주)달리 대표이사

1996년 설립된 (주)달리(대표이사 최근수)는 디지털 UV프린터를 자체 개발해 세계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용 프린터 전문 기업이다.

프린터 헤드, UV램프, UV잉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디지털 UV프린터의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자체 개발했으며, 네오젯 프린터 개발 이후 자외선 경화 시스템을 갖는 프린팅 제어 알고리즘, 잉크차압 보정 및 퍼지장치 기술 등을 국산화했다.

디지털 라벨프린터 '네오 머큐리'

최근수 대표는 론칭행사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은 디지털 프린터를 넘어 디지털 프레스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향한 첫 걸음이 바로 디지털 라벨프린터인 '네오 머큐리 시리즈'다. 수년간의 개발 끝에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라벨 프린터 '네오 머큐리'는 선보인 전시회마다 큰 관심

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능이 필요함을 발견해 제품개발 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며 "4월 첫날에 론칭한 신제품 라벨 프린터 '네오 머큐리'에 고객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디지털 라벨프린터인 '네오 머큐리'는 지난해 키페스2012와 드루파2012에 출품해 큰 관심을 모았던 인쇄기다. 뛰어난 품질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UV 경화 프린터 엔트리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롤 미디어 전용 UV 라벨 프린터다. 바코드와 QR코드 등 가변 데이터도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진 품질의 고해상도인 600×1200dpi에 분당 최고 50m 속도로 출력이 가능하다. 셋업 및 작업교체시간 간소화로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LED 램프를 채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긴 교체주기로 비용절감과 관리가 용이하다.

TCP 시스템으로 제작돼 장비 설치시 추가 작업없이 전기와 에어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잉크컬러는 C, M, Y, K 등 4색 외에도 흰색이 옵션으로 처리 가능하며, UV 잉크를 사용한다. ↻